

5월이 오면

김종성*

계절의 여왕이라는 푸르른 계절 5월은 청년의 달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다. 어느 하나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이 중에 대학생 신입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며, 어버이날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효 사상의 미덕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특히 남북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 부모 자식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무치는 달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의 중요한 고전 13경에는 시경 서경(상서) 역경(주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효사상을 중시하는 효경(孝經)이 포함되어 있다. 효의 원칙과 규범을 수록한 유교 경전으로 공자와 증자(曾子)가 효도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저자에 대해서는 공자 설, 증자설, 증자의 제자들이 집록했다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증자 문인들의 저술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이 책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바탕으로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치국의 근본이며 모든 신분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고 덕목이며 윤리 규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효경의 앞부분에 “숭고한 덕과 중요한 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천하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며,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다. (有至德要道, 以順天下, 民用和睦, 上下無怨.)”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다.

올해에도 가정의 달 5월에 송실대학은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귀하게 키운 자녀들을 우리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리는 한편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키울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온 행사지만 어려운 상황의 금년에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5월이면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있다. 1980년 5월 당시 나는 강원도 11사단에서 군복무 중이었으며 만기 제대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갑자기 비상이 걸려 단독군장을 하고 인근 학교 정문에 배치되어 경계근무를 섰던 기억이 난다. 국내에서 자국의 군인이 자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 멀리 붉은 서광이 비치는 5월이여
서울숲공원 튜립은 만개하여 웃음 짓고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여기저기 거닐고
꿈과 희망 소중히 간직한 청년들이여

대지는 온통 푸르름에 물들어 밝았다
송실대 캠퍼스는 철쭉꽃으로 찬란하다
진리관은 햇빛을 받아 금색으로 변했다
그대들의 삶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리